

# 비트코인, 美·EU 규제 강화에 한주간 10% '뚝'

우리은행 '우리WON뱅크' 8개 시장지표 분석 등 다양한 금융정보 제공

2개월 만에 2.6만 달러대로 하락  
美, 암호화폐 채굴 과세 추진에  
점프·제인 스트리트 사업 축소  
가상자산 유동성 위기 우려 증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년래 최저를 기록해 금리동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비트코인이 한 때 2만7000 달러가 붕괴됐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간 10% 넘게 하락하면서 올 들어 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 중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다시 부상하고 있고, 미국 당국의 규제 강화로 가상자산 업체들이 사업축소를 결정하면서 하락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만68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2일 2만7000달러가 붕괴면서 지난 3월 17일 이후 약 2개월만에 2만6000달러대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일주일간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올 들어 주간 최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3월 글로벌 은행들의 파산 사태에서 '탈중앙화 금융'으로 주목을 받으며 3만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 은행 팩웨스트뱅크의 예금금감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상승세를 기

대했지만 이번에는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팩웨스트뱅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지난 5일까지 1주일 동안 예금이 9.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팩웨스트 주가는 80% 급락하며 지난 4일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팩웨스트는 SVB, 시그니처은행, 퍼

스트리퍼블릭은행에 이어 다음으로 무너질 은행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암호화폐 채굴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올해 12월 31일 이후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료를 1년에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세율을 적용해 3년

뒤 최고 3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과세 규모는 10년간 최대 35억 달러(4조6400억원)에 이를 전망으로 이는 채굴업체의 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현지시간) CNBC는 미국의 대형 가상자산 업체 점프 스트리트와 제인 스트리트가 미국 내 가상자산 사업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점프 스트리트는 미국 내 실물 정산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 조성을 중단하고 제인 스트리트는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 확장 계획을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시장 유동성이 더 떨어지면서 시장위기가 높아질 것이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는 가상자산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 안정화가 될 시 투심이 살아날 수 있지만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고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창립 12주년' DGB금융, 전 계열사 임직원 화합의 장 마련

/이승용 기자

IM세일즈맨·모의투자대회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DGB금융그룹이 오는 17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전 계열사 임직원들의 'ONE DGB' 소속감 확산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DGB금융은 창립 12주년을 기념해 '백 투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금융인의 정석'을 콘셉트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개최되는 창립기념식인 만큼 대면 참여를 확대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금융그룹 임직원이라는 소속감과 자부

심을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DGB금융은 금융인의 소양을 주제로 금융인 다룬 축제와 행사를 추구하기 위해 ▲스포츠- '스크린골프대회' ▲영업·PR- 'IM세일즈맨' ▲문화·ESG- 'DGB소장품 특별 전시전' ▲투자- '모의투자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

련했다.

IM세일즈맨은 금융인의 기본이 되는 영업과 PR 관련 경제·금융 요소가 가미된 특정 과제를 통해 임직원의 끼와 지식을 재미난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마련했다.

또한 그룹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애플리케이션 'iM하이' 신규 출시를 창립일과 함께 기념하고자 앱 내 모의투자대회를 앞으로 2달간 진행한다. 스크린골프는 예선·본선을 사전에 운영, 상위실적 4명을 대상으로 창립일 당일 결승을 치른다.

아울러 그룹 소장품 전시전은 지역민에게 문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지

역 예술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5월 한 달간 열린다. 그룹 소장품 40여점과 지역 청년작가 작품 30여점을 전시하며, 청년작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창립일 당일 예술품 구매 행사도 진행한다.

DGB금융 관계자는 14일 "매년 특별한 콘셉트로 진행되는 DGB의 창립기념일 행사를 타금융사나 대기업에서 여러 차례 벤치마킹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며 "DGB라는 이름 아래 전 임직원이 함께 'ONE DGB'의 가치와 그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창립일 행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베트남 우리은행 MZ세대 고객 대상 '더치페이' 서비스

우리은행은 베트남우리은행이 더치페이가 일상적인 문화인 베트남 MZ세대를 대상으로 '우리WON베트남' 내에 더치페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WON베트남' 더치페이 서비스는 현지 은행 유사 서비스와 달리 카드 및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 후 바로 편리하게 더치페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더치페이 서비스의 접근 편의성도 높여 '우리WON베트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객에게도 베트남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Zalo(잘로)'와 스마트폰 주소록 연동으로 간편하게 상대방에게 더치페이 요청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더치페이 요청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WON베트남'에서 간편하게 요청금액을 이체하거나, 베트남 금융권 공동 QR 서비스인 VIET QR코드를 이용해 타은행 앱에서도 더치페이 요청금액이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베트남우리은행은 베트남 MZ세대 고객을 위해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 더치페이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홍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현지화된 서비스로 베트남 고객에게 편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 교보생명, 민원 '업계 최저'... 금융 소비자 권익 신장 결실

VOC 경영지원시스템서 신속 응대  
매년 민원 줄어 4년 새 60% 급감

교보생명이 대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지난해 가장 적은 민원 건수를 기록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2년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기준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이 8.4건으로 대형 생명보험회사 중에서 가장 적었다.

전년 대비 증감률로 봐도 민원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3건에서 지난해 8.4건으로 25.7% 줄었다.

14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 연속 민원이 꾸준히 줄고 있다. 특히 2018년 보유계약 10만 건당 21.1건이었던 민원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지난해 8.4건으로 낮아졌다. 4년 새 60.1% 급감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교보생명이 금융소비자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교보생명은 예방과 대응, 재발 방지를 아우르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춰놓고 있다. 특히 '고객의소리(VOC) 경영지원시스템'을 통해 민원사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한다.

홈페이지 등 디지털 채널에서 제기된 민원은 접수와 동시에 VOC 경영지원시스템과 연동된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 배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며 곧

바로 응대가 이뤄진다.

중대한 민원 사안은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거쳐 소비자보호 협의회에 상정, 주요 경영진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소보지보호실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이 독립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특징이다.

교보생명은 이와 함께 교육자료 같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내부통제기준, 소비자보호기준 등을 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 사례에 기반한 실전 사항을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정기 교육, 완전 가입실전 다짐 및 전자서명, 영업 현장 완전 가입 컨설팅, 반기별 우수 조직 포상 등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교보생명

을 시행해 금융소비자 불만 요인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했다. /구남영 기자